

도로안전부터 건설현장까지...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

- 건설 현장 철거, 도로 안전관리 등 위험한 작업에 로봇 시범 운용
- 국토교통 AI 응용제품 26개 제품·서비스 선정, 2년간 총 750억 원 지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, 이하 국토부)는 11개 부처* 합동으로 추진하는 ‘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(AX-Sprint)’ 일환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여 AI 기술이 접목된 총 26개 제품·서비스를 최종 선정하였으며,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.

* 기획처, 국토·산업·과기정통·국방·농식품·복지·기후·해수·중기부, 식약처

○ ‘AX-Sprint(전력질주)’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,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단기간(1~2년) 내 시장 출시 가능한 완성형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 속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□ ‘국토교통 AX(AI Transformation)’ 사업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0일 까지 ‘국토·교통’과 ‘도로·모빌리티’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, 총 147개 과제(국토·교통 82개, 도로·모빌리티 65개)가 접수되어 평균 5.9: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.

○ 이 중 상용화 가능성,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26개 과제 (국토·교통 14개, 도로·모빌리티 12개)를 최종 선정하였고 2년간* 총 7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.

* 유형 ①(Agile 트랙, 1년 내 시장 출시) : 16개 과제, 600억 원 → ‘26년 지원

유형 ②(Build-up 트랙, 2년 내 개발 완료) : 10개 과제, 150억 원 → ‘26~’27년 지원

□ 특히,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과제들은 출·퇴근길 도로 위부터 주거 공간 까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.

- ‘국토·교통’ 분야에서는 ▲피지컬 AI 기반의 공간지능 로봇이 아파트나 사무실 실내 환경을 스스로 이해한 후 자동 배송하여 일상 속 편리함을 높이고, ▲AI 건설 로봇이 위험한 철거 작업을 대신 수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조한다. 또한, ▲비접촉식 AI 기반 측정장비가 철도종사자의 다중생체신호를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위험 유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일상 속 AI 체감도를 높이는 기술이 선정되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.
 - ‘도로·모빌리티’ 분야에서는 ▲작업구간 내 자율주행 안전 로봇이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, ▲AI 기반의 도로상태 분석과 포트홀(도로 파임) 자동탐지를 통해 도로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며, ▲실시간 AI 교통상황 분석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AI 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.
-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AX-Sprint 사업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신속 투입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‘실전형 AI 사업’”이라며, “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조달·판로 등 후속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태경	(044-201-3258)
		담당자	사무관	박유준	(044-201-3261)
		담당자	주무관	김수현	(044-201-4743)
		전문위원	전문위원	윤희준	(044-201-3254)
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책임자	과 장	홍복의	(044-201-4130)
		담당자	사무관	장유진	(044-201-3928)
담당자		주무관	김도연	(044-201-4131)	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